

# 제주도내 벽화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용환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미술학과 교수)  
손일삼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미술학과 전임강사)

## 1. 서론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는 이상을 실현하려는 활동의 과정 또는 성과. 특히, 예술·도덕·종교·제도 등의 내면적·정신적 활동의 소산을 문화라 일컫는다.

문화는 지역의 생활환경과 이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상호 연관되어 조화를 이룰 경우 그 지역의 시각적 이미지와 문화수준은 향상된다. 이러한 문화 요소 중에서도 벽화의 제작은 여러 사람에게 직접적인 예술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또한, 제주의 지리적 위치로 인한 관광 환경과 생활권 단위의 복합 공간으로서 지역의 문화예술을 발전시킬 수 있으며, 대외적으로 제주의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하고 적합한 부분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제주의 시각적 이미지와 문화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보다 나은 삶의 환경, 또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특성화를 기대한다면 지역적, 문화적 환경을 적절하게 내세운 벽화예술품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제주는 지역적 공간 특성으로 도시의 주거환경과 촌락단위의 주거환경의 구분이 짝아 직접적이고 감각적인 공간체험의 기회를 일시에 제공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제주의 표정을 보여줄 수 있는 벽화의 활성화는 균형 잡힌 공공예술성을 체험할 수 있으며 여러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삶의 질과 결부된 벽화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벽화가

가진 문화적·경제적 가치상승 효과와 삶의 질적 향상에 대한 효과를 충분히 활용해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 제주도내에 위치한 벽화는 그 존재의 개념이 아직 미미한 실정이고, 이에 대한 제작기법, 내용의 선정, 표현방법, 색채 계획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벽화의 내용은 공공미를 우선시해서 그 작품이 대중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으로 선택되어야 할 것이나, 한편으로는 제주의 민간신앙이나 설화를 바탕으로 하는 내용이 첨가된 교육적인 벽화를 제작하여 제주적인 이미지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기후조건을 고려한 적절한 제작기법과 사용재료를 선택하여 표현함으로써 장기보존 가치의 만족을 충족시키고 더불어 그 역할을 다 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현재 제주도내에 제작된 벽화의 현황을 조사 분석함으로써 제주도 벽화에 대한 문제점과 방향성을 제시하여 지역 문화예술 공간에 대한 벽화의 인식을 고조시키고 제주도 특성에 맞는 이미지의 환경벽화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또한, 향후 제작될 벽화는 작품에 대한 지역성과 예술적 가치를 고려한 제작기법 외에도 벽화의 지식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제작한 전문성을 가지는 벽화가 구축되어지는 것을 기대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반적인 벽화의 발달과정과 제작기법을 문헌을 통해서 알아보고 현재 제주도내에 제

작된 벽화를 조사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여 제주의 환경이미지를 고려한 벽화 제작을 통해 보다 아름답고 활기찬 제주의 문화예술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주도는 지역적 특성으로 일반적인 벽화의 개념으로 바로 볼 수 있는 벽화의 시설이 미비하므로, 공공시설물에 설치된 벽화의 개념으로 확대하여 진행되어야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때문에 현 제주도내에 위치한 벽화를 중심으로 최근 몇 년 동안 제작되어진 보존성이 있는 벽화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제주도내의 공공시설물에 위치한 크고 작은 벽화의 예도 포함시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고찰하여 보았다.

첫째, 벽화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통한 벽화의 의미와 기능, 재료와 제작기법을 살펴보았다.

둘째, 제주도 내 벽화의 분포와 제작기법에 따른 사용재료 및 표현방법을 살펴보고, 벽화제작을 둘러싼 지역여건과 기반시설의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해 보았다.

셋째, 현황조사를 통한 개선방안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제주도의 벽화 기반시설의 효율적 확충, 운영을 위한 중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 II. 벽화의 일반적 고찰

### 1. 전통적 벽화의 종류와 제작기법

벽화가 그려지기 시작한 시기는 정확하지 않지만 주술적인 행위와 종교적 의미에서 생성된 구석기인의 동굴벽화에서부터 시작된다. 이후 본격적으로 부와 권력의 상징으로 주변공간을 장식하기 시작한 것이 청동기 이후 건축물의 벽에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서양의 경우 르네상스를 전후로 교회 건축에서부터 일반 주택의 벽 마감에 이르기 까지 폭넓게 응용되어 발달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삼국시대의 고분과 사찰을 중심으로 한 벽화가 오늘날까지 남아 있다. 이후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재료의 발전은 오늘날 현대벽화에서 보다 다양한 양식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벽화를 이해하려면 먼저 벽화의 종류와 구조에 관한 이해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 1) 벽화의 종류

일반적으로 벽화의 종류를 구분할 때는 그 사용된 재료와 제작기법으로써 구분된다. 벽화는 그림이 그려진 바탕재료에 의한 구분법과 구조물의 특성에 따라서도 분류할 수 있다. 바탕재에 의한 분류는 흙벽화, 돌벽화, 판벽화로 그려진 바탕의 성격에 따라 조지벽화(粗地壁畫), 화장지 벽화(化粧紙壁畫), 첩부벽화(貼付壁畫)로 그림의 성격에 따라 종교화, 장식화로 구분되고 구조물에 따라 건물벽화, 무덤벽화, 동굴벽화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가. 바탕재에 의한 구분

##### ㄱ. 돌벽화

구석기 시대의 동굴벽화 등이 이에 속하며 자연의 암석이나 돌 위에 아무런 치장 없이 행해진 벽화.

##### ㄴ. 흙벽화

무덤의 양식이나 사찰, 성당 등에서 볼 수 있으며, 진흙의 벽을 만들고 그 위에 그림을 그린 벽화

##### ㄷ. 판벽화

건축의 벽면이나 박공 등에 나무판으로 치장한 후 그림을 그리는 벽화로 나눌 수 있다.

#### 나. 벽화의 제작기법상의 분류

##### ㄱ. 조지벽화(粗地壁畫)

자연의 돌이나 가공된 재료(벽돌, 전돌)위에 직접 그려진 벽화를 말하고, 서양의 라스코 동굴벽화와 고구려 우현리 고분벽화의 예를 들 수 있다.

조지벽화는 대부분의 동굴벽화에서 나타나는 벽화의 제작기법으로 가장 오래된 벽화의 제작기법이라 할 수 있다. 이 기법은 동굴이나 건축물의 석재면에 석회나 황토의 덧칠을 하지 않고 직접 안료로 그림을 그려 놓는 방법으로 이렇게 그려진 조지벽화는 다른 벽화에 비해 변질이 없고, 보존상태가 좋은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조지벽화의 내구성능은 벽면을 구성하는 석회암층이 빗물이나 습기에 용해되어 석면의 요철사이에 끼어있는 채색분말들을 아주 얇고 투명

하게 피막처리(코팅효과)를 해주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sup>1)</sup>

#### ㄴ. 화장지벽화 (化粧紙壁畫)

돌이나 흙 또는 가공재위에 석회나 고운 진흙을 바르고 그리는 행위로서 지금까지 가장 많이 행하여진 기법으로 모든 회화기법의 뿌리이다. 이러한 회벽에 행하는 벽화의 기법은 '프레스코(Fresco)와 프레스코 세코(Fresco Secco) 기법으로 분류되는데, 고구려의 안악 3호분과 이집트 피라미드의 벽화, 중세 유럽의 성당벽화에서 나타난다.

벽화를 기법상 분류하는 데에는 프레스코(Fresco)<sup>2)</sup>, 세코(Secco),<sup>3)</sup> 템페라(Tempera)<sup>4)</sup>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들 용어에는

① 벽화 바탕의 재료와 성질,

② 안료 사용방법 - 특정 접착제(Binding Media) 첨가 여부,

③ 제작 후 색감과 지지체의 종류, 즉 벽화의 기본바탕(석재, 나무판재, 점토벽) 등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이들 용어별 기준개념을 간략하게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sup>5)</sup> <표1>

#### ㄷ. 첨부벽화 (貼付壁畫)

첨부벽화란 한지, 비단, 테라코타, 도자기, 동판 등 다양한 재료에 그림을 그리고 건물벽면에 접착제로 부착시키는 방법을 말한다. 때문에 그림 제작에 있어 다른 벽화에 비해 자유롭고 다양한 특성을 지닌다. 그리고 기법 또한 일반 회화의 기법이 다양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그 내구성이 약하여 실내벽화에 제작되었다.<sup>6)</sup> 동양에서 많이 행하여졌으며 공주 마곡사와 중앙청의 천정화의 예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벽화는 주로 사찰문화재에서 볼

<표1> 벽화의 제작기법 분류

구분/종류	프레스코(Fresco)	세코(Secco)	템페라(Tempera)
지지체 재질	석회	석회, 돌, 점토 등 다양함	대체로 나무판재. 그러나 석회, 점토 판도 가능
바탕의 재료와 성질	촉촉한 상태의 석회	건조한 상태	나무판재, 또는 건조한 석회, 白堊 등(바탕칠)
매개물의 여부	불필요 (화학반응)	반드시 필요 (다양함)	달걀노른자 (기름, 아교, 고무 첨가 등 첨가)
제작 특기 사항	1. 바탕이 촉촉할 때 제작 (작업의 신속성) 2. 안료를 물에 섞는다.	1. 바탕이 마른 뒤 제작 2. 안료를 매개물에 섞어 사용	1. 바탕이 마른 뒤 제작 2. 안료를 매개물과 섞어 사용
결과 (특징)	1. 안료층과 벽체층의 일체감. 2. 표면에 광택 (탄산칼슘 결정층 존재)	1. 안료 층 구분 확실 (덧칠, 수정이 가능) 2. 안료의 분말화 소멸	1. 안료층 구분이 확실 2. 안료입자의 분포상태 확인 가능

수 있으며 흙벽에 화장지 기법을 이용한 벽화(Fresco, Secco)가 대중을 이루나 천정 및 화반벽에 판벽화도 많이 발견되고 있다.

## 2. 현대 벽화의 현황과 제작기법

인류의 기원과 함께 시작한 벽화 미술의 역사는 단 순히 장식물로서의 기능이 아닌 예술장르로 동.서양의 구분이 없이 발전을 거듭해 왔다. 우리나라는 대표적 벽화인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그 우수성을 살펴 볼 수 있고 현대의 건축물 벽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패턴으로 전개되었으며, 순수한 거리의 미술로 활용되어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기도 했다.

과거의 벽화가 문화, 예술, 종교 등을 반영해주는

1) 이종상, 「장안 고구려 고분벽화」, PP.206.

2) 프레스코(습식기법)는 회벽 바탕이 촉촉한 상태에서 그리는 기법을 말한다. 원래는 이탈리아어로 '신선한'의 의미로서 이 기법으로 그림을 그리면 신선한 느낌이 든다는 의미에서 기원하는 것이다.

3) 세코(건식기법)란 이탈리아어로 '건조한'이란 뜻으로서 벽화의 바탕재질이 건조한 다음에 그림을 그리는 기법을 말한다. 대체로 촉촉한 바탕에 그리는 프레스코 기법에 대응되어 사용한다.

4) 템페라 기법(진채기법)은 수용성 매개물 특히 계란노른자를 안료에 섞어 그리는 기법을 말한다. 좁은 의미로는 목재 바탕에 젯소, 석회 등으로 흰 마감층을 만들고 계란노른자를 안료접착제로 섞어 그린 중세의 성화기법을 일컫지만 넓은 의미로 해석하면 건조한 바탕위에 안료를 각종 매개물과 섞어 그린 그림을 통칭한다. 벽화기법을 논할 때는 위의 세코기법에 포함된다.

5) 이상수, 안병찬(1998) "고구려벽화 제작기법試考", 고구려연구 제5집, 고구려 연구회, PP.197~199.

6) 이종상(1973) "고대벽화의 사적 고찰과 신 벽화의 재료와 기법에 대한 연구", 한국문화논총, 삼중당, P.562.

측면으로서 복잡한 공정과 함께 개인의 창작품이 아닌 일부 지도층의 요구조건에 맞는 고분벽화의 발달을 중점적으로 발전 하였다면 현재의 벽화는 보다 자유롭고 광범위하며 순수한 창작활동으로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전통적인 방법을 기반으로 한 벽화 제작기법을 발전시켜 새롭고 독창적인 벽화의 창조에 활발한 연구가 일반화되어지는 적절한 표현방법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오늘날 프랑스를 비롯한 성공적인 환경벽화를 살펴보면 기발한 아이디어가 그 원동력이라 하겠다. 도시는 그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카테고리 안에 있는 움직이는 조형물처럼 서로가 잘 어울려 조화를 이룬다. 슈퍼그래픽, 도시벽화, 현대벽화 운동 등 그러나 어떤 의미로든 쉽고 광범위한 도시벽화 행위는 실험적이든 미관적 측면에서는 계속 이어져 왔다. 이러한 도시벽화가 언제 출발하였느냐는 사회의 상황실정의 한계와 도시벽화를 규정하는 범위의 한계에 따라서 의견이 다르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서는 1951년 프랑스 문교성에서 시작한 “건축예산의 1퍼센트의 장식비”라는 말에서 출발한다고 본다. 이러한 도시벽화는 공공기관과 문화원 등지로 확산되고 이제는 하나의 예술장르로 이론적 뒷받침과 함께 많은 진행을 보게 되었다.

이러한 도시의 벽화가 새로운 미디어로서 프랑스에서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은 첫째로, 문화성을 중심으로 각 지역의 미술학교와 화가, 건축가가 각각의 장르에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배려한 전문기관과 협회의 활동을 들 수 있다.<sup>7)</sup>

우리나라도 80년대 초 도시환경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인 관심이 도출되면서, 서울시가 건축물 내외 환경미술품 설치를 의무화하였고, 이로 인해 본격적인 도시벽화 활성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80년대에 제작되었던 벽화들은 실내벽화가 많은 수를 차지하며, 그 제작기법상 벽면에 직접 그리는 전통적 회화 방식과 함께 첩부벽화인 액자첩부벽화, 테라코타<sup>8)</sup>

벽화, 도자벽화, 모자이크벽화<sup>9)</sup> 등으로 제작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외벽화의 경우, 그 재료는 페인트나 아크릴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현대적 소재보다는 전통적 소재인 심장생, 번영, 기원, 사계절, 풍요 등의 소재가 많이 그려지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현대벽화를 그 설치장소와 유형, 제작기법과 재료에 따라 분석해 보면, 설치장소로는 아파트, 상업건물, 학교, 공공건물 등이 많으며, 특히 아파트의 벽화제작이 증가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sup>10)</sup>

전통적 벽화의 개념이 자연암벽이나 상징적인 건축구조물에 작품을 제작하여 종교적이고 장식적인 접근이라면, 현대의 벽화는 보다 다양해진 건축구조물에 따른 적절한 재료와 활용이 뒷받침 되어 넓은 의미로서 사회 전체의 미의식을 반영하는 공공미술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따라서 현대의 벽화는 그 유형과 기법이 다양해지고 구조물의 표정을 효과적으로 변화시키는 대중미술로서의 가치를 제공하는 기능을 갖는다. 이러한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기존의 전통적인 제작기법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유형의 벽화 제작기법에 의한 벽화구조물이 진행되어야 한다.

아직 연구 도중이거나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실험적 벽화의 제작기법 중에서 상감벽화와 부식벽화 그리고 혼성 벽화 등 세 가지 기법을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상감벽화 기법은 벽지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이전 유동기 때 주로 무기질의 불변색 안료 분말을 사용하여 그리는 방법이다. 이때 지질에 원하는 안료를 뿌리고 습기가 완전히 스며들면 적당한 형(形)의 벽화용 미장삽을 가지고 표면에서 5mm나 1cm정도의 심도로 눌러 문지른다. 심도가 깊으면 동일 정량의 안료일 경우 백색 지질의 배합율로 인해서 채도가 낮아지며 명도는 높아진다. 이 외에 벽질이 경화되는 것을 따라 그 위에 층층이 다른 색을 2~5mm 두께로 이색층을 만들고 경화한 후에 적당

7) 광태호(86.4) 「파리의 도시벽화와 환경구조물」, 꾸밈 59, PP.96~97.

8) 테라코타(terra cotta) : 이탈리아어로 '구운흙'이라는 뜻이다. 사질이 많은 철분을 함유한 거친 점토로 조형화한 것을 건조시켜 800~1000℃ 저온에서 굽는다. 고대로부터 항아라, 기와, 벽돌 등에 사용되었다.

9) 여러 가지 색의 도판들을 조각조각 접합시켜 무늬나 회화를 형성한 벽화양식을 말한다.

10) 조윤경(2000), “한국벽화의 형성과 제작기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교육대학원, P.58.

한 형태로 요형의 골을 음각하면 층마다 다른 색으로 변화 있는 선과 면을 얻을 수 있다. 때에 따라서는 요형의 골속에 다른 색벽질을 끼워 상감벽화를 만들기도 한다. 대강 굳은 후에 침식법으로 가필할 수도 있고 연마구로 물을 부어 갈아 낼 수도 있다.

이 방법은 색채감이 중후하고 벽질의 응고력이 강하므로 장구한 세월이 지나도 마멸되거나 탈락되지 않으며, 변색되지 않으므로 고대 벽화의 단점을 능히 보완할 수 있는 벽화 기법이다.

둘째, 부식벽화의 기법은 재래 고분이나 사찰 벽화가 원벽과 도장벽, 또는 도장벽과 채색이 접착제와 수명으로 인해서 탈락되는 폐단을 막기 위해 연구된 기법으로, 전혀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천연색 또는 화장지의 습벽·건벽 위에 제 3의 강한 벽지 부식력이 있는 산성 용매를 써서 삼투압과 모세관 현상에 의한 침투작용과 부식력에 의한 침식작용을 합쳐 벽지에 고착시키는 가장 어려운 기법 중의 하나이다.

이 기법은 벽질의 질료가 모두 고체이므로 고정된 습고질기(濕固質期)나 완전 건조질기(乾固質期)에 제작이 용이하다. 벽지가 건조해도 침투력이 강하므로 색소가 깊이까지 침식되고 건조가 빨라 단시일 내에 조정될 색감을 알 수 있다. 완성 후 벽질 자체가 금속성으로 응고된 질감을 보게 되며 열처리할 경우는 표면 광채가 난다. 열처리 후 색상이 달라지는 것에 부분적으로만 이 방법을 쓰면 거의 무궁한 변화를 가져올 뿐더러 원만한 역학적 힘에 외벽에서도 능히 장구한 세월을 보낼 수 있게 된다.

셋째, 혼성 벽화는 이상의 두 가지 특질적이고 이질적인 기법을 병용하여 제작하는 종합적인 방법으로, 화면의 어느 부위는 백색 벽질을 첨부하거나 남겨 두었다가 그 부위만 후에 부식법으로 그리면 된다. 특이한 화면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수정이 가능하며 오랜 시간을 여유있게 제작할 수 있어 좋으며, 나중에 그린 부분이 마음에 안 들면 정으로 뜯어내고 한 권을 다시 발라 그리는 수도 있다<sup>11)</sup>

이 외에 타일형, 단위체 반복형, 테라코타형 등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벽화는 내구성, 내화성으로 인하여 건축적 기능을 수용하고 미(美)와 용(用)의 기능과 함께 실용적 기능을 동시에 가진다.

### III. 제주도내 벽화의 현황과 개선방안

#### 1. 제주도내 벽화의 현황

과거의 벽화 개념에서 출발한다면 벽화자체의 규모나 의미는 예술적인 가치가 있는 제한적인 부분으로 인식되지만 현 시대의 환경적 차원으로서의 벽화는 그 범위가 확대되어 진다.

제주도에서 벽화는 제주의 자연환경과 문화활동이 이루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시각적 이미지의 역할로서 도민뿐만 아니라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측면에서 벽화는 제주의 문화수준을 알아보는데 중요한 지표기능과 함께 그 규모나 내용 및 성격에 있어 다양한 형태를 취하게 됨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는 현재 제주도내의 벽화의 유형을 건축물의 벽면에서부터 소규모의 장식물 까지도 포함시켜 파악하고, 자연환경과 벽화와의 관계에 심미성과 기능적 요소를 결부시켜 분석하여 적절한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연환경과 벽화의 조화를 추구함으로써 문화친화적 자연환경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주변의 여건이란 벽화의 주제(상징성, 상업성), 재료 및 제작기법, 표현양식(구상, 비구상), 형태, 색채 등을 말한다.

또한 심미성과 기능적 요소는 지역의 문화적 특징을 이해하는 것을 말하는데, 즉 장소에 따른 기후조건, 도시와 촌락, 상업, 공업, 관광지 등 각기 다른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는 특징을 파악하여 이에 맞는 벽화를 제작하여 기능성을 살리는 것이다.

#### 1) 제주도내 벽화의 실태조사 및 분석

조사대상은 제주도 전체를 대상으로 관찰하였으며, 벽면 부조와 일시적인 건축물의 벽면 자체도 포함시

11) 박치훈(1986), 미술세계 3월호, 기획특집 「진정한 의미로서의 환경벽화와 국내상황」, PP.46~47의 내용을 재구성한 것임.

킨 조사결과 80여 개 정도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제주도내에 벽화의 수량이 적고 정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실정이라서 보 존가치가 있는 벽화의 예를 분류하고 분석하였다.

### 가. 분포도

현재 제주도의 벽화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제주시와 북제주군지역에 벽화가 많았으며, 상대적으로 서귀포시와 남제주군 지역의 벽화는 제작빈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치구조물 별로 살펴보면 제주시에는 아파트나 상업건물에 집중적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도심외곽 중산간 지역으로는 물탱크, 해안지역으로는 양어장과 방파제에 주로 벽화가 그려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어린이집이나 학교주변의 가로벽에 제작된 벽화가 대체로 고른 지역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의 도심지와 중산간 및 해안도로 주변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 아직도 미관상 좋지 않은 벽의 공간이 무수히 많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도시가 발달함에 따라 일시적인 구조물의 건축형태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진행중인 공사장의 가건물의 형태가 많아 환경미화적으로 제주이미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가건물에 제작된 벽화는 일시적인 구조물이라는 심리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허술하게 제작되어지고 있다.

현대의 벽화의 개념은 실내외의 벽 뿐 만이 아닌 시각적 효과를 연출할 수 있는 공간과 함께 입체적이고 어느 장소에도 제작될 수 있다.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공원, 광장, 보행로의 바닥표면 등의 공간을 활용하여 어느 장소에서건 미술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이러한 공간의 활용은 앞으로도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제주의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복지시설의 한 부분이고, 다각적으로 사람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공공의 가치를 갖고 있다. 따라서 벽화의 제작이 지역사회의 특색 있는 시설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권장된다면 지역주민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공동체 형성을 위한 장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나. 벽화의 주제 및 표현양식별 분류

제주도내 벽화의 주제를 크게 자연풍광 이미지와 상징적 이미지 및 상업적 이미지로 크게 구분하고, 구상, 비구상, 반구상의 표현양식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조사결과 환경미화를 목적으로 한 자연풍광 이미지의 벽화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의 제주의 상징적 이미지와 상업적인 광고 이미지의 주제를 목적으로 한 벽화는 그 빈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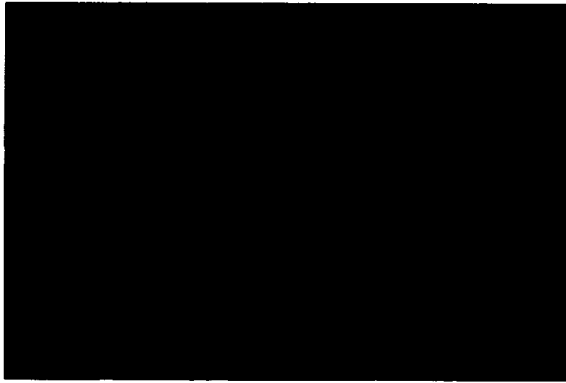
전반적으로 자연풍광을 배경으로 벽화는 동물이나 사람들의 생활모습을 주제로 한 사실적인 표현의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해안가의 방파제나 양어장의 벽화에서는 주로 바다를 배경으로 한 자연풍경에 해녀, 물고기, 어패류 등의 바다를 연상시키는 주제의 이미지가 그려져 있다.〈도판1〉 중산간 지대의 물탱크에는 농부, 소, 말 등 농경생활의 이미지를 주제로 담은 내용의 벽화가 주로 그려져 있다.〈도판2〉

도심지의 밀집주거지에는 아파트 벽면의 그래픽 등에서 제주의 자연풍광(사계)과 농경생활, 동물(사슴, 노루 등), 제주를 연상시키는 이미지가 복합적으로 그려져 있음을 알 수 있다.〈도판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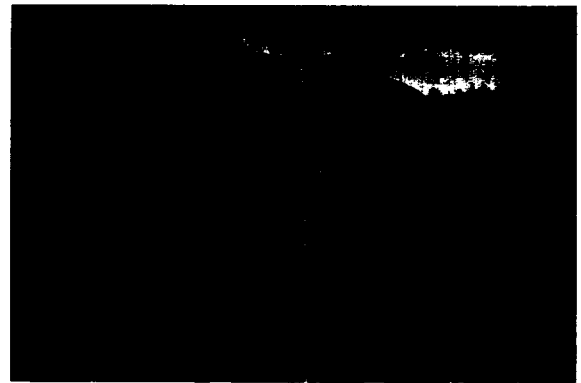
제주의 상징적 이미지를 표현한 예는 제주의 탄생설화를 다룬 시청벽면의 '탐라의 여명'을 들 수 있으나 이 외에 역사적 소재를 다룬 벽화의 다양한 제작이 아쉽다.

상업적 벽화는 주로 개인소유의 실내외 건물에 제작되었으며 실내의 경우 서양의 문화에 맞는 주제와 소재의 그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실외는 주로 주차장의 벽면이나 은행의 담벽면, 어린이집의 벽면, 음식점의 벽면 등을 활용한 벽화가 대부분이다.〈도판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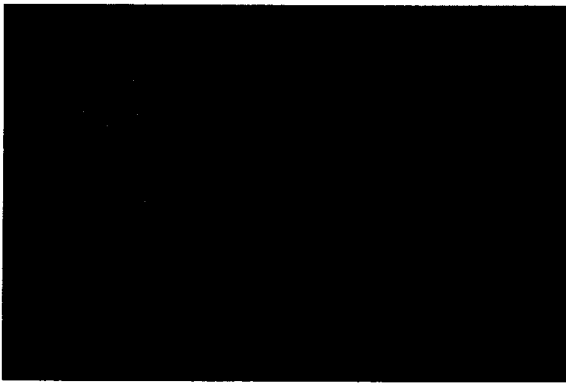
제주도의 벽화는 지역 자연환경과 역사적 상징성 및 전통문화와 연관시킨 벽화를 제작함이 바람직하나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표현 내용 면에서 전통문화나 역사성이 있는 상징적인 주제의 다양성이 부족하고 각 벽마다 그 주변 장소에 구분 없이 바다와 산, 동물을 주제로 한 내용의 벽화가 산발적으로 존재하고 있



도판1. 해안가 방파제



도판2. 중산간 물탱크



도판3. 부영아파트 벽면



도판4. 어린이집 벽면



도판5. 전력공사 벽면



도판5. 삼양해수욕장

음을 알 수 있다. 이같은 현상은 제주의 전체적인 이미지가 주는 환경적 영향도 있으나 체계적인 계획 하에 제작되어 반영하는 경우가 드물고 의뢰자와 제작자의 벽화에 대한 인식의 부족에서 오는 결과로 판단된다.

제주도 벽화의 표현양식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자연경관과 농경생활의 연계성 있는 주제를 사실적으로 표현한 구상적 양식의 벽화가 대부분이고, 부분적으로 표현의 어색함으로 인해 오히려 역효과를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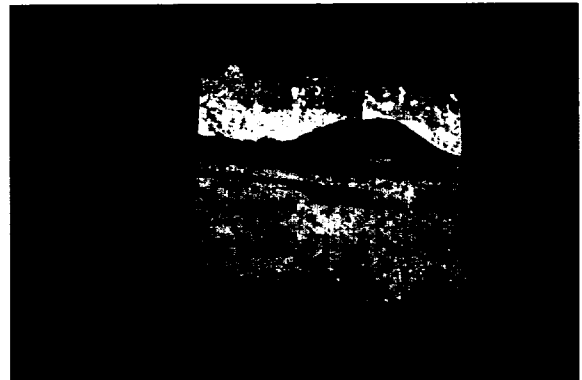
지고 오는 경우도 많다.

비구상적인 표현방법은 아파트 단지의 굴뚝이나 삼양해수욕장의 하수종말처리장 등의 비교적 높은 건물의 형태에서 부분적으로 보이고 있다.<도판5>

반구상적 표현양식은 면 분할을 통한 형태의 단순미를 추구한 주제의 표현제작이 이루어져 있으나 구상적인 표현양식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단순미를 강조한 벽화는 제주도 전지역에 걸쳐 나타나고 있으며 대부분 어린이집을 비롯한 학교 주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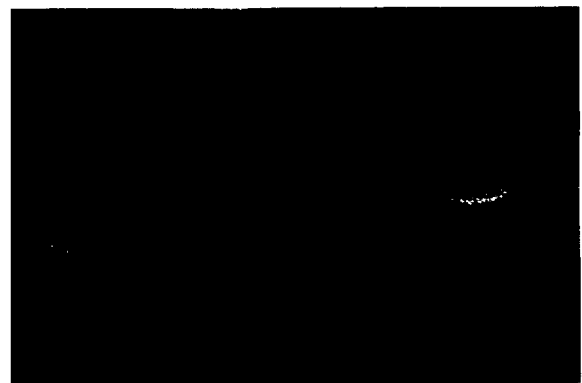
도판6. 탐동 부조벽화



도판7. 모자이크 벽화



도판8. 사진매체를 이용한 첩부벽화



도판8. 사진매체를 이용한 첩부벽화

의 벽면에서 주로 찾아 볼 수 있다. 제주도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바탕을 이루는 만큼 비구상적 표현요소를 적극 도입하여 현대적인 미를 창조하여 새로운 공간 연출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벽화는 환경미학적 시각효과 뿐만 아니라 공공미술로서의 가치를 갖는다. 때문에 벽화의 제작은 예술적 논리와 개발의 논리가 상호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형태로 발전이 추구되어야 한다. 실제 벽화를 제작하는 측이 주관적인 관점으로만 임한다면 그것은 개인적인 성향에 의하여 대중을 위한 공공 미술로서의 제 역할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때문에 벽화의 제작은 시작단계에서부터 그림의 주제와 제작 기법, 표현방법, 감상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이 공동으로 공감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주도는 농경생활을 하는 촌락단위의 지역성으로 미술관이나 전시장이 아니면 접하기 어려운 미술과의 만남을 벽화를 통해 주도적으로 작용하게 하여 문화예술에 관한 활성화의 방편으로서의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다. 벽화의 재질 및 제작기법별 분류

제주도 내 벽화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한 결과 바탕 재질별로 벽화의 90%가 시멘트위에 제작되었으며 합성수지, 나무, 철판의 재질이 간헐적으로 사용되었다. 제작기법별로는 수성, 유성, 도자, 부조, 첩부벽화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시멘트위에 수성 재료로 채색을 하여 제작한 Painting 기법의 작업 방법이 많이 사용되었다. Painting의 기법은 대부분 수성 페인트와 일반 아크릴릭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부분적으로 유성의 재료가 사용되었다.

현재 제주의 전반적인 벽화의 제작에 있어 수성재료의 사용은 타 재료에 비해 훨씬 손쉽게 제작할 수 있으며 비용도 저렴하고 내용도 쉽게 표현할 수 있는 장점으로 Painting 기법으로 표현한 벽화의 이미지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수성재료가 요즘 발달되었다고는 하나 제주의 기후 조건을 고려한다면 오랜시간 처음의 상태를 유지하기는 부족한 재료이다. 제주의 기후는 4면이 바다로 이루어지



고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염분의 피해를 피하지 못한 위치에 있어 내구성에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때문에 바다와 직접 맞닿은 구조물들은 Painting 기법보다는 도자를 이용한 테라코타, 세라믹 방법이나 부조물을 이용하여 부분적인 채색이 이루어진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벽화는 시간이 지나면 변색과 퇴색이 나타나고 바탕 구조물의 성질에 따라 균열이 생겨 흉물스럽게 변하기도 하고 구조물의 소유자가 바뀌면서 벽화 자체가 사라져 버릴 수도 있다. 이것은 벽화가 가지는 구조적 성질에 따른 문제점으로 후원자들에게 벽화제작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주저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현대 건축구조물의 단명성에서 오는 양식에 알맞은 적절한 재료의 새로운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보통 수성페인트로 그려지는 벽화의 내구성이 1년 정도이고 방수처리 된 후 유성페인트로 그리면 5년 정도임을 감안할 때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시멘트를 이용한 부조 위에 채색을 한 탐동 부조벽화<도판6>와 시멘트 구조물 위에 도자를 이용한 모자이크 벽화<도판7>, 현무암이나 사진매체를 이용한 첩부벽화의 사례가 일부 제작되었다.

이러한 세라믹 그래픽 타일이나, 시멘트 부조, 모자이크 등을 이용하면 반영구적으로 보존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의 벽화의 제작방향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벽화는 일시적인 효과의 일회성과 같은 느낌을 주는 역할보다는 문화유산으로서의 영구적인 가치로 남아야 하는 전통의 개념이 강하다. 하지만 현재의 환경미술차원으로서의 벽화의 구조물은 어떤 목적에 의해 일시적으로 설치된 벽면에 제작될 경우가 상당 부분 차지한다. 공사장의 간판이나, 기타의 일시적인 장소의 설치물이 예가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러한 구조물에는 심미성을 강조한 벽화보다는 기능성을 강조한 단순한 벽화가 제작됨이 바람직하다.

일부 공사장의 가림막에 사진을 액자형식으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된 첩부벽화의 형태의 활용은 재활이 가능하고 깔끔한 이미지로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도판8> 이러한 건축구조물에 Painting으로 제작하는 방법보다는 근래에 행해지고 있는 첩부벽

화 형태의 인쇄물을 부착하여 재사용이 가능하게 하는 방법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관광지의 실경이 어설픔게 표현되어진 효율적이지 못하고 계획성 없는 벽화의 제작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다.

또한 콘크리트 건물의 침울하고 산만한 공사현장의 느낌에 활기를 불어 넣어줄 수 있는 벽화 제작기법의 활용이 필요하다.

사용 재료는 벽화의 내용과 위치에 적합하게 선택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일재료의 벽화가 주류를 이루는 현상이 개선되지 않는 한 제주의 이미지를 고취시키는 벽화로서의 기능을 도출하기는 어렵다.

제주의 대부분의 벽화는 창의적이며 독창적이고 아름다움과 실험성을 지닌 예술성 있는 심미성에 비중을 둔 벽화에 비해 기능성만을 살려 제작한 무미건조하고 아름답지 못한 벽화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많은 예산소요에서 오는 경제적 원리에 기인하는 과정에서 오는 부조화라고 생각된다.

벽화 제작자는 주관적 보다는 객관적인 표현으로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책임이 필요한 작업이다. 미술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부족한 인식의 작가는 벽화를 제작함에 있어 시각적 효과에만 집중할 뿐 예술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데에는 효과를 보지 못할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이러한 가장 큰 이유는 공급자와 작가와의 연결고리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나타난 결과일 경우가 많다.

현재 외국이나 대도시의 사례를 보더라도 도자벽화의 형식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과는 달리 제주의 벽화는 다양성 면에서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제주시 탐동의 부조 벽화의 반 입체적 형식의 벽화와 일부 타일을 이용한 벽화의 재료 사용과 기법은 앞으로 더욱 연구되어야 할 부분으로 판단된다.

### 라. 벽화 바탕재의 형태별 분류

제주도 내에 위치한 벽화의 바탕재를 형태별로 분류하면 크게 가로형, 세로형, 나열형으로 구분지을 수 있다.

제주도의 지형적 특색 때문에 해안가에는 대체적으

로 가로형과 나열형의 벽화가 많고 밀집주거지는 혼합된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벽화도 하나의 그 지역의 이미지나 의미 전달의 함축성이 있으므로 의미 전달을 위하여 그 장소의 특징에 맞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밀집주거지의 벽화는 알맞은 장소의 벽면을 활용하였을 경우에 그 효과가 빛을 발한다. 가급적이면 공공의 장소에 특별한 시설물이 없어도 벽화를 조성하여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시각 확보를 제공하고 주어진 벽의 공간에 주변 환경과 조화시킴으로서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도록 한다.

공간성의 확보는 어떤 위치의 벽에 따라 응용을 하는 것에 따라 그 성격과 넓이에 따라 각기 다르게 이용되므로 반드시 각 특성에 맞는 기법이 필요하다. 예를들어 사람들의 보행이 많은 장소에서는 구상적 화면에 다양한 재료의 사용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직접 체험 할 수 있고, 보행로가 아닌 공간 즉 차량의 이동이 빈번한 공간의 벽은 리듬 있는 구도를 연출하여 그래픽 요소를 적용하는 것이 시각에 연속성을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기존의 패턴을 벗어난 과감한 패턴으로서 색다른 이미지를 연출하고 자유로운 구성과 색채를 적절히 활용하여 좁은 벽면을 넓어보이게 한다. 또한 스케일이 크고 대담한 패턴으로 동적에너지와 함께 활력 있는 벽면을 만들 수 있다.

전원지의 자연환경은 바다의 수평선과 육지의 유연한 형태의 선이 조화를 이루는 형태여서 해안가 구조물의 대부분은 나열형의 형태가 주로 차지한다. 이러한 나열형의 구조물에는 단조로운 공간에 좀더 과감하고 자유로운 배치를 고려하면 지루하고 수동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생동감을 줄 것이고 지역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 마. 장소에 따른 색채배색

제주도 내의 벽화는 도심지대의 주거지를 중심으로 하는 벽화와 중산간지대의 물탱크, 해안지대의 방파제 벽화로 크게 구분지을 수 있다. 이러한 제주도의 벽화 사례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4도 배색과 5도 이상의 배색이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표현에 있어서 벽화의 형태에 크게 의존하여 일정한 패턴 색채위에 색상이 구분되어 놓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조색은 벽화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색으로서 파스텔 톤의 밝은 청회색 계통의 무채색계열에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그 외에는 저채도의 청색계열, 녹색계열, 적색계열 순으로 나타났다. 무채색이 주조색인 경우는 형태나 색채구성에 있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히 바탕색의 역할을 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이 밝은 청회색 등 무채색 위주의 주조색의 사용은 획일적인 패턴 바탕위에 유채색을 적용시키는 기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 다양한 색채의 활용이 필요하고, 단순히 색의 반복보다 창조적이고 개성 있는 색의 사용이 만들어내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보다 밀도 있는 벽화의 색채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며 인위적이기 보다는 자연을 바탕으로 한 색채의 사용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배색의 경우 대부분의 사례가 백색(W), 흑색(B), 청색(B), 녹색(G), 노랑(Y), 적색(R)등의 기본적인 색상 구성으로 배색이 이루어져 있으며 기본적인 색상에 의한 배색수가 증가될수록 현란하고 화려한 느낌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 제주도 내의 벽화에 다양한 색이 적용되고 있지만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경우는 드물다.

이와 같은 결과는 벽화제작자의 주변환경과 색채의 연구가 부족한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벽화에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형식적으로 적용된 기하학적 색면과 색채에서 오는 이질감은 그 조화도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제주도의 환경색은 도시형태, 성격, 인구 및 주거양식, 기후 등을 관련해서 선택되어야 하고, 인구가 밀집되어지는 주거지와 대부분의 면적을 차지하는 전원적인 배경의 색채 계획을 잘 구분하여 특성을 살리는 색채가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색채감정면에서는 많은 특성이 존재하며 어떠한 색을 보았을 때 그 색의 연상이 관념적으로 고정화되어 나타내기 때문에 지역환경의 계절변화와 풍토성을 고려한 색채를 조사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제주도는 전반적으로 맑지만 비가 많이 오고 습한

기후와 산업화로 인하여 밀집 주거지의 콘크리트 벽면의 회색빛이 자연스럽게 눈에 띈다. 이러한 회색이 주는 느낌은 겹손, 우울, 점잖음 등의 성격으로 상징되므로, 밀집주거지 경관과 어울리는 비교적 온화한 분위기의 저채도와 명도를 조절하여 조화를 이루는 색채가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제주도의 전원은 대체적으로 맑고 청명한 하늘과 바다를 배경으로 주거지가 형성되어 벽화의 표현수단으로 색채의 활용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된다. 지나치게 화려한 인공색채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자연환경을 고려한 연결고리로서의 쾌적한 색감을 활용한다면 온화하고 맑은 분위기의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나치게 약한 환경색은 인간감정을 무기력함을 줄 수 있으므로 비교적 맑고 명도와 채도의 차이를 주어 활기 있는 분위기와 안정성을 만들어주는 색채를 사용함이 바람직하다.

벽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색채의 사용은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중요성이 증대된다. 색채외의 요소들은 대부분 벽화 주문자와 제작자의 역할에서 결정되어 진다면 벽화의 색채 이미지는 일반적으로 부드러운 중성색이 선호되는 것을 감안할 때 자극적인 색채보다는 저채도로 부드럽고 산뜻한 이미지를 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간헐적으로 제주도 내의 벽화의 경우 지나치게 사용된 고채도의 색은 사람들로 하여금 혼돈과 당혹감을 주고 있다. 때문에 제주의 벽화시설물은 지역적인 제한된 색의 개념으로 확대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심어주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2. 개선방안

제주도의 벽화시설은 문화친화적 환경을 창출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 제작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역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배제한 채 무분별한 색채의 도입과 내용의 부적절함은 이미 지역정서적인 안정감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심리적 불안감마저 들게 한다. 또한 표현의 심한 단순화는 공간예술로서의 이미지 연출이 부족하고 장식성이 결여되어 예술성에 대한 인식의 폭이 좁아졌다고 할 수 있다.

벽화는 다양한 요소와 기능들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복잡한 구조의 유기체로서, 각 기능별 목적에 적절한 기법으로 제작되었을 때 효율적인 벽화가 가능해 진다.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핵심적인 관건은 관공서나 상업종사자로서 벽화를 공급하는 계층과 실제 작업을 하는 전문인력, 그리고 지역민의 벽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확대되어야 가능하다고 본다. 공급자는 벽화의 가치와 효과를 인식하고 수준 있는 벽화제작을 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제공해야 하며, 전문인력은 지역에 맞는 공공성과, 내구성을 겸비한 창조적인 내용의 벽화를 제작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위와 같은 벽화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면에서 제작되어야 한다.

1) 벽화는 지역의 생활양식의 집합이라는 문화의 개념과 직결되며, 다른 도시와 비교하여 차별성과 특수성이 필요하다. 제주지역의 벽화라는 척도를 기준으로 정체성을 살리는 내용이 설정되고 제작되어야 한다.

2) 벽화가 사람들의 문화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려면 왕래가 빈번한 지역의 구조물에 제작되어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시적 효과를 노리는 형식보다는 지속성에 중점을 두고 서서히 형성되도록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효과적으로 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의 벽화를 구성하는 환경과 구조물의 특징, 이미지, 상징 등 대단히 미묘하고 복잡한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벽화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이므로 이러한 기초 자료를 조사하여 벽화를 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공공건축물이나 개인건축물의 구조물의 벽화는 전문적 사업의 일환으로서 제작되어야 하며, 비전문인의 활동이 적절하게 조화되도록 한다. 특히 비전문 인력의 활동을 체계화하고 활성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저비용 고효율이 가능한 벽화의 효율적 가치를 이용해야 한다. 지금의 무질서한 벽화의 제작으로 인한 병리적 현상은 인식의 부족으로 인해 투자하지 않고 방치한 무관심의 결과이므로, 지속적 관심과 정부

의 연구개발, 사회적 실천을 위한 전 사회적 투자가 필요하다.

벽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벽화의 질과 직결되나 현실적으로 적절한 예산을 적용해서 작업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가능하다면 일반 벽화사업의 계획시에 도시정체성에 관한 기여도를 검색할 수 있는 장치를 강구하여 일부 예산을 벽화제작에 할당하도록 한다.

또한, 다양한 전문인력의 자원봉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시민들의 자발 참여와 호응이 있어야만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역량을 가진 개인 및 단체의 자원봉사체제를 구축하고, 향토 출신으로서 외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인력의 관심과 참여를 촉진하도록 한다.

5) 공원·광장등 기존의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구조물을 활용하여, 지역의 정체성과 관련된 자원을 소재로 하는 이미지를 적극 개발하고 적절한 장소에 적용하도록 한다. 현 제주도의 벽화제작은 그 규모면에서 소규모의 산발적인 벽화의 제작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일부 관공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개인 사업자의 상업적인 벽화가 난무하여 보존가치가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별도의 시설을 크게 투자하지 않고서도 벽화의 제작이 가능한 행사장이나, 특별 장소에 적극 제작하도록 한다.

6)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지역단위의 도시계획에 벽화를 권장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각 지역의 벽화전문가를 보강하여 조례를 개정, 심의를 강화하고, 미관심의 건축물에 주요시설물의 벽화도 사전 심의를 받도록 규제한다. 관이 시행하는 모든 시설물의 신축, 설치, 재 도장 시에는 전문인력에게 의뢰, 자문을 거치도록 한다. 간판 등의 상업적 벽화광고물에 대해 크기, 위치, 수량과 더불어 벽화제작의 제한의 규제가 필요하다.

7) 대중매체나 사회봉사단체들은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도민에게 환경벽화에 대한 중요성과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홍보가 필요하다. 시각환경에 비중이 큰 벽면은 설문, 일반공모 등의 방법으로 전문가와 도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벽

화를 제작한다.

8) 기존의 Painting 기법의 일변도에서 벗어나 다양한 재질의 재료(모자이크 타일, 부조 등)를 풍토성에 맞게 적절히 사용하여, 장기적으로 사람들의 심미안을 향상시킴으로써 후손에게 수준 높은 벽화의 유산을 물려줘야 한다. 제주도의 벽화는 재질과 기법적 측면에서 다양하게 적용되지 않아 타지방과의 비교에서 회화적 표현이나 장식적 마감이 부족하다. 무분별한 상품성 구조물과 색채의 난발은 결국 전원적인 배경의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 결과를 가져와 지역적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9) 색채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오랜 시간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역색을 바탕으로 4계절에 공유될 수 있는 색상을 선택함이 바람직하다. 지역 환경과의 조화에 신중을 기하고, 주관적이기보다는 객관적인 색채를 계획해서 지역색을 형성하도록 한다. 면적지각효과를 고려하여 제한된 색을 사용하고 단순미와 명도단계에 변화를 주어 다양함을 부여한다.

## IV. 결 론

벽화의 활성화는 사회적으로 예술에 대한 관심과 함께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이루어지고, 벽화를 제작하는 사람들의 부단한 노력이 복합적으로 나올 경우 극대화 시킬 수 있다.

제주도의 생활환경으로서의 벽화의 이미지는 대중에게 시각적으로 빠르게 전달된다. 비록 벽화라는 개념에서 제주도 전체의 이미지를 대변할 수는 없지만 짧은 시간내에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제주의 이미지를 대변하는 데에는 더없이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된다. 과거의 주변환경을 현 시대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소 어려움이 있겠으나 공급자와 제작자 그리고 관람을 하는 일반인들과의 관계에서 현 제주도 내에 제작된 벽화를 조사 분석하고 벽화가 주는 영향에 관해 알아보았다. 또한, 다양한 벽화의 재료와 제작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적용범위를 예상해보았으며 개선방안을 통해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살릴 수 있는 밑거름이 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벽화의 제작방법에 따라서 지역의 문화적 이미지

를 형성하고, 아름다움을 창출함으로써 광고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시각적 이미지로서의 벽화는 제주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선명하게 부각시키고,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또한 벽화는 타 지역과의 특별성을 강조할 수 있으며 촉진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게 된다.

2. 지역문화로서의 벽화는 단순한 벽장식이 아닌 지역의 정체성과 공동체를 확립하는 중요한 자원으로써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지역문화를 공유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애착심을 갖게 되며, 지역사회의 대한 공동체 의식을 형성할 수 있다.

3. 벽화는 외부효과가 큰 공공미술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생산적인 가치를 갖고 있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지역의 상징적인 내용(제주의 전설, 민간신앙)이나 테마를 도입하여 자연스럽게 제주의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창출하고, 지역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4. 벽화는 자연환경과 도시공간 환경에 친화적인 가치를 가지며, 도시의 쾌적성과 창조성을 증대시킨다. 이러한 환경은 장기적으로 사람들에게 창조성을 제공하고 각종 사회병리 문제를 치유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5. 제주의 벽화는 천연자연과 건축물과의 중요한 연결고리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갖게 된다.

제주의 밀집주거지를 제외한 전지역은 유연한 곡선미를 가진 오름이 발달되어 있어 자연스러운 편안함이 느껴지나, 건축물의 수직적 느낌은 이러한 이미지를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제주의 형태적인 이미지를 고려한 이미지의 연결고리로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6. 노후된 건물이나 낡고, 혐오적인 장소를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위장할 수 있다. 조형적인 단조로움을 보완하여, 흥미를 유발하고, 인간미와 활기를 주는 액센트가 된다. 또한, 환경 커뮤니케이션으로 도시민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문화적 요소가 된다.

현재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으로 인하여 해결방안이 어렵지만 보다 다양한 연구결과물이 제시되어 지역전체의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결과물이 필요하다. 또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공동으로 계획하는 시스템과 제도적 보안장치, 민간의 협력체계가 구축되고, 행정적인 지원책의 역할이 상호 협력된다면 제주의 이미지 개선과 인간생활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문헌

임학순 외(1996), 「도시 문화환경 조성방안」, 한국문화정책개발원  
 강지영(2004), 「설치예술과 환경 디자인」, 광문각  
 이종상(1973) "고대벽화의 사적 고찰과 신 벽화의 재료와 기법에 대한 연구", 한국문화논총, 삼중당,  
 이상수 · 안병찬(1998), "고구려벽화 제작기법시고", 고구려연구 제5집, 고구려 연구회  
 서명희(2001), "색채의 환경적 기능과 도시경관효과 향상을 위한 조화방법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조윤경(2000), "한국 벽화의 형성과 제작기법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조원혁(2002), "도자벽화 제작 과정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조형대학원석사학위논문  
 이종상(1988), 「벽화제작에 따른 재료와 기법」, (솔바람 먹내음) 민족문화문고간행회  
 광태호,(1986),「파리의 도시벽화와 환경구조물」, 꾸림 59  
 이종상, 「장안 고구려 고분벽화」, 조선 일보사, 서울  
 박치훈(1986) 「진정한 의미로서의 환경벽화와 국내상황」미술세계 3월호, 기획특집,